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을 위한 선언

기술의 진보가 소수의 지배가 아닌 인류 모두의 복지에 기여하는 미래를 향하여

독립적인 시민 제안 선언문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인류는 새로운 문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가 오랜 세월 축적해 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가능성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로봇공학 및 다양한 물리적 기술과 결합하여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게 되면서, 생산과 노동, 경제와 정치, 교육과 의료, 나아가 일상생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과 기아를 줄이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더 많은 사람이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적 활동과 학습, 가족과 공동체, 인간다운 삶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가 반드시 인류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부와 권력이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집중된다면,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생산비용이 낮아지는 동시에 사람들이 일자리와 소득, 구매력을 잃게 된다면, 풍요로운 생산이 곧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전쟁과 폭력, 과도한 감시와 억압을 확대하는 데 사용된다면, 기술의 진보는 오히려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교육,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와 지역의 사람들은 새로운 문명의 혜택에서 더욱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풍요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인간의 노동이 변화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존엄한 삶을 이어 갈 것인가?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인류 전체의 복지와 평화에 기여하도록 이끌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기술 전문가나 기업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며, 세계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에 관한 열린 국제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서 다음의 일곱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함께 추구할 일곱 가지 원칙

제1원칙. 인간과 인공지능은 협력과 공존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인간의
지식과 창의성을 확장하고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기
술로 인식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발전하며, 인간은 인공지능과의 협력을 통
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경쟁과 지배가 아니라 상호 보완과
협력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을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로 규정하거나 인간의 권리와 책임을 대체하도록 한다
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역량이 확대될수록 인간의 존엄과 자유, 책임, 판단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인
공지능은 인간의 책임과 적절한 감독 아래 인류의 공동선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활
용되어야 합니다.

제2원칙.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풍요는 인류 모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비용을 낮춘다면,
그 성과가 소수의 기업과 자본 소유자에게만 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생산성과 부를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경제적
·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생산량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을 인류 공동의 번영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소득, 구매력, 경제적 기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분배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사회적 배당,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정책적 가능성을 열린 자세로 검
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각 사회의 여건과 민주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기술이 만들어 내는 풍요가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3원칙. 인간의 가치는 유급 노동이나 경제적 생산성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인간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로봇이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고용과 소득을 연결해 온 기존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임금이나 직업, 경제적 생산성만으로 평가하는 사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생계 기반이 약화된다면, 그 부담을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는 적절한 소득보장과 사회적 보호, 교육과 재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간이 생존을 위한 노동뿐 아니라 창작과 돌봄, 학습과 문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활동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존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더 많이 대신할수록,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보장할 책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4원칙. 인공지능은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생명을 빼앗고 전쟁과 폭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체계와 자율무기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인간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기계에 무책임하게 위임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국제인도법상의 의무가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국가나 기업, 정치적 세력도 효율성이나 권력의 논리를 앞세워 인간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의 오용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관한 규범과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군비경쟁을 가속하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제5원칙. 기술 발전의 혜택은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도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혜택이 기술 선진국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만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빈곤과 기아, 질병, 교육 및 의료 접근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기술적·경제적 기회가 부족한 여러 지역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진료를 지원하고,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농업과 식량 생산, 재난 대응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뿐 아니라 기반시설과 교육,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참여가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풍요로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집중되는 세상이 아니라,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도달하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태어난 국가나 지역, 개인의 경제적 여건이 새로운 문명의 혜택을 누릴 자격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6원칙. 인공지능 관련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자본과 정보가 소수의 기업이나 국가, 정치적 세력에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권력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다른 사람들의 기회와 권리를 구조적으로 박탈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거버넌스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독립적인 평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권력 남용과 차별을 방지하고, 시민적 자유와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술의 소유와 활용은 소수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과 사회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제7원칙. 인공지능의 미래는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갈 미래는 특정 국가나 기업, 소수 전문가 집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향은 국경과 세대, 경제적 조건을 넘어 인류 전체에 미칩니다.

우리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 학문과 직업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국제적 대화의 장을 제안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자와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노동자, 예술가, 교육자, 공공정책 전문가, 기술 발전에서 소외된 공동체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국가나 기업, 정치적 이해관계도 인류의 미래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엄정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공동의 원칙, 책임 있는 제도,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해답이 명확하지 않기에, 함께 질문하고 배우며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미래

우리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두려움만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기술이 모든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식과 창의성을 확장하고, 질병과 빈곤을 줄이며, 모든 사람이 건강과 안전,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창출하는 풍요가 소수의 부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세상.
- 사람들이 생존만을 위한 노동의 부담에서 점차 벗어나 가족과 이웃을 돌보고, 배우고, 창조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세상.
-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도 교육과 의료, 안전과 기회의 혜택을 누리며, 어느 국가나 공동체도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서 배제되지 않는 세상.
- 인공지능이 전쟁과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되는 세상.

우리는 이러한 미래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인간의 책임 있는 선택과 공정한 제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묻는 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인류는 인공지능과 함께 어떤 문명을 만들어야 하는가?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협력하고 공존할 것인가?

생산과 풍요가 확대되는 시대에 그 혜택을 어떻게 공정하게 공유할 것인가?

아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함께 나아갈 것인가?

어느 한 사람이나 국가도 이러한 질문에 홀로 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류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적과 언어, 정치적 견해와 경제적 여건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대화를 개방합니다.

이 선언은 최종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며 더 나은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진보가 소수의 지배가 아닌 모두의 복지로 이어지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풍요를 공유하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문명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본 선언문은 독립적인 시민 제안으로서 국제적 논의와 공공의 검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정부, 국제기구, 기업 또는 정치단체의 공식 입장이나 승인·후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국제적 대화 및 의견 제안: bundopro@gmail.com